

# 포스트인문학과 언어 세미오시스\*

## - 포스트휴먼 시대의 언어연구 방향에 대한 소고

강병창\*\*

### 【 차 례 】

- I. 들어가는 말
- II. 인문학에서 포스트인문학으로
  - 1. 인문학의 위기와 포스트휴먼 시대
  - 2. 포스트인문학의 대두와 지형
- III. 포스트인문학 관점에서 본 언어 세미오시스
  - 1. 언어-비언어 연속성
  - 2. 언어연구의 대상: 정제된 추상체에서 총체적 사실로
  - 3. 포스트인문학적 언어 세미오시스 연구의 방향
- IV. 나오는 말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21세기 위기의 시대 상황과 맞물려 전통 인문학의 지형 변화가 포스트인문학으로 새롭게 수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동안 기호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온 언어에 대한 성찰이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과 포스트인문학의 사유공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를 고찰한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오늘날 인류세 위기의 동인으로 지목되는 인간중심주의와 인간예외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며, 탈중심화된 인간을 사유한다. 이는 학문적으로는 포스트인문학 운동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인간-비인간, 자연-문화 이분법에 대해, 그리고 삶-앎-함의 주체에 대해 새로운 성찰을 요구

\* 이 연구는 202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또한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6A3A01097826).

\*\* 단독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교수, [kangbch@hufs.ac.kr](mailto:kangbch@hufs.ac.kr)

하고 있다. 현재 포스트인문학 담론은 인문학의 전 영역에서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지만, 인간중심주의의 기반이 되는 언어중심주의에 대한 성찰은 다소 부진해 보인다. 이 논문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데 일조하기 위한 개괄적 고찰로서 포스트인문학 관점에서 언어 세미오시스 연구의 향방을 가늠해 보려는 시도이다. 이 고찰에서는 언어-비언어 연속성과 언어연구 대상으로서의 총체적 언어 사실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포스트인문학적 언어 세미오시스 연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언어의 독보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언어도 전체 생물계의 다양한 소통체계의 맥락 속에서 상관적 자리매김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고, 이로써 인간중심주의에서 포스트휴머니즘적 탈인간중심주의로 나아가는 통로를 엿볼 것이다. 또한 20세기 주류 언어학이 언어가 매개하는 ‘몸-앓-문화-소통’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경계를 긋고 관여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음을 지적하고, ‘앓-함’ 이원모형을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개관한다.

열쇳어 : 포스트인문학,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언어 세미오시스, 언어-비언어 연속성, 총체적 언어 사실

## I.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의 목적은 인문학이 포스트인문학으로 개편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언어 세미오시스에 대한 연구가 어떤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개관해 보는 데 있다. 전통적으로 인문학은 ‘자연학’에 대립하는 ‘정신학’이었고, 여기서 언어와 기호의 문제는 인간의 본성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21세기 과학이 인간의 정신도 자연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산시키면서 인문학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므로, 인문학은 인공지능, 포스트휴먼, 4차 산업혁명의 담론에 참여하고 대응하면서 휴머니티(인간다움)를 새롭게 성찰함으로써 대안을 내놓고 있음을 감지한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응답을 인문학 ‘이후’의 인문학이라는 의미에서 ‘포스트인문학posthumanities’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인문학을 포스트인문학으로 재편되게 하는 근간에는 인간중심주의와 인간예외주

의에 대한 반성이 있다. 전통 인문학에서 언어는 인간다움 및 인간 정신을 각인하는 핵심으로 여겨져 왔으므로, 이제 포스트인문학에서 그러한 언어와 언어연구가 어떻게 새롭게 자리매김하는지를 들여다볼 이유는 충분하다.

이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장(II)에는 전통 인문학에서 포스트인문학 사유에 이르는 과정을 개관하며, 두 번째 장(III)에서는 포스트인문학 관점에서 언어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나아갈지를 조망해 볼 것이다. 인문학에서 포스트인문학으로 나아가는 사유의 변혁은 인문학 위기 담론에서 시작하며, 그 위기의 배후에 있는 정신에 대한 과학주의적, 자연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며,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에 기반한 새로운 인문학적 사유로 이어짐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이러한 포스트인문학적 관점이 인간중심주의의 토대가 되는 언어중심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언어 세미오시스 이해에 어떤 지각변동을 가져다주는지를 조망해 볼 것이다.

## II. 인문학에서 포스트인문학으로

### 1. 인문학의 위기와 포스트휴먼 시대

알다시피 ‘인문학’은 영어 ‘humanities’의 번역이며, 이 용어는 라틴어 ‘studia humanitatis’(영어로 직역하면 ‘studies of humanity’)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러한 인문학은 르네상스 때부터 후마니타스(humanitas, 인간성)를 기르는 고전 공부(신이 아닌 인간의 영역에서 교양을 위한 배움)에서 시작했고, 19세기에 와서는 영역이 확장되어 자연과학과 대립하는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자연과학과 인문학, 두 진영은 20세기까지는 그런대로 상보적 균형을 이루면서 공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세기 말엽부터 퍼지게 된 이른바 ‘지구화’와 더불어 인문학 위기 담론

이 일기 시작했다. 21세기로 들어서서는 노골적으로 ‘돈이 되지 않는’ 인문학은 불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다. 예전에는 인문학은 돈벌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필요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마저도 희박해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을 비켜 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이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면서 시장경제와 사회정책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문학을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 변화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인문학을 시대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움직임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인간을 크게 보아 ‘몸’과 ‘마음’이라는 두 측면을 갖는다고 할 때, 인간 고유의 특성은 몸보다는 마음 쪽에서 발현된다고 봄으로써 마음(‘정신’)이 인문학을 규정하는 핵심어가 되어 왔다. 독일어권에서는 19세기부터 인문학을—자연과학에 해당하는 ‘자연학Naturwissenschaft’과 대립시켜—‘정신학Geisteswissenschaft’으로 불리왔으며, 자연학이 ‘설명erklären’을 하는 학문인데 반해 정신학은 ‘이해verstehen’를 하는 학문이었다. 자연학은 인간의 몸을 포함한 물질적 자연 현상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법칙을 찾아내려는 학문 영역인 반면에, 정신학은 인간 정신이 활동하는 방식과 만들어내는 산물(언어, 문화, 예술 등)의 의미를 해석적으로 이해하려는 학문 영역이었던 것이다. 또한 자연과학은 ‘법칙을 세우는 nomothetisch’ 학문인 데 비해 인문학은 ‘개별성을 기술하는 idiographisch’ 학문이었다.<sup>1)</sup>

그런데 이러한 ‘정신학’으로서의 인문학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인간의 정신도 (자연)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는 도전이다. 최근의 인지과학, 신경과학, 인공지능 연구는 ‘인간 정신에 대한 자연과학’으로 나서면서 그동안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던 마음/정신/영혼 혹은 이성/지성/의식에까지 도달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

---

1) R. Bod, *A New History of the Humanities: The Search for Principles and Patterns from Antiquity to the Pres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7; p.257.

의 밑바탕에는 ‘정신을 가진 생물’인 인간의 의식이란 결국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화학적 작용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그러나 물질에서 정신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찾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로 남아 있다. 만일 그 고리가 언젠가 밝혀져 인간 정신이 자연 현상으로 환원되고 인과적 자연법칙으로 설명된다면 정신의 조작, 이용, 기술적 구현도 가능해질 것이다.

오늘날 인문학은 시대적, 사회적, 과학·기술적 변화와 더불어 전방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한쪽에서는 과학주의와 자연주의가 인문학의 고유 대상인 ‘정신/마음’의 영역에까지 손을 뻗쳐 인공지능(AI)을 구현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기치 아래 학문-기술 융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방향에서는 오늘날 ‘인류세 Anthropocene’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인간중심주의’ 또는 ‘인간에 외주의’에 대한 반성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이에 대한 성찰을 포괄하는 하나의 큰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포스트휴먼posthuman’ 또는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일 것이다.<sup>2)</sup>

포스트휴머니즘은 지난 세기의 후반부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하여 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사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흐름에는 다양한 방향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그 개념적 성격을 한 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이는 우선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명칭 자체가 중의적인 독법을 허용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이 용어는 ‘포스트휴먼-이즘posthuman-ism’으로도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으로도 읽힐 수 있는 것이다. 이 양자는 ‘이후/이탈/극복’의 의미를 갖는 ‘포스트-’의 대상에 초점 차이가 있음을 암시한다. ‘포스트휴먼-이즘’은 우선적으로는 ‘휴먼’(인간)을, ‘포스트-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sup>3)</sup>

---

2) 이에 관한 최근의 개관은 신상규 외, 『포스트휴먼이 물려온다: AI 시대, 다시 인간의 길을 여는 키워드 8』, 아카넷, 2020 참조.

‘포스트휴먼-이즘’의 ‘포스트휴먼’은 말 그대로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벗어난 새로운 인간’을 뜻한다. 포스트휴먼-이즘이 꿈꾸는 그러한 ‘인간 이후/초월’의 존재는 정보·생명·나노 기술을 통해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존재 자체를 ‘극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기계적 “슈퍼종Superspezies”<sup>4)</sup>이다. 관련 담론에서는 이 방향의 포스트휴머니즘을 흔히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으로 특징짓기도 한다. ‘포스트휴먼-이즘’과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과 기술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양자를 엄밀히 구분하는 시각도 있다. 야이나 로에 따르면,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 ‘자체’를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기술적으로 최적화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접두사 ‘트랜스-’는 ‘현재적 인간을 거쳐 인간 x.0으로’ 이행한다는 것”을 뜻한다.<sup>5)</sup> 그러니까 트랜스휴머니즘은 자연과학과 실리콘 밸리 기술에 기대어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이상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되는데, 이 시도는 휴머니즘의 토대가 되는 이상인 이성, 합리, 자유, 진보, 지식 등을 급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저변에 깔린 생각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 온 것은 처음부터 도구와 기술이며, 인간의 몸과 정신을 확장하는 이 도구적 기술을 배제하고서는 인간성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엄밀한 의미의 ‘포스트휴먼-이즘’(야이나 로의 용어로는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 1.0에서 인간 2.0, 3.0 등(이른바 ‘트랜스휴먼’)으로 계속 발전/최적화시키는 것보다는 인간 자체를 인공적 초지능으로 대체하여 극복(‘포스트-’)하는 데 관심을 둔다.<sup>6)</sup>

3) 포스트휴머니즘을 ‘포스트휴먼-이즘’과 ‘포스트-휴머니즘’으로 구분한 것은 헤어브레히터(S. Herbrechter, *Posthumanism: A Critical Analysis*, Bloomsbury, 2013, p.16)의 독법 논의(‘post-humanism’, ‘post-humanism’, ‘posthuman-ism’)를 참조하여 압축한 것이다. 이 두 독법(‘포스트휴먼-이즘’과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제안은 이수진, 『사이언스픽션, 인간과 기술의 가능성』,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29~38쪽에서도 이미 개진된 바 있다(이 점을 지적해 준 익명의 논평자에게 감사드린다).

4) J. Loh, *Trans- und Posthumanismus zur Einführung*, Junius, 2018, p.13. (야이나 로,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조창호 역,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20쪽.)

5) *Ibid.*, p.32(42쪽).

한편 ‘포스트-휴머니즘’(아니나 로의 용어로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의 극복(‘포스트-’)에 주안점을 둬으로써 트랜스휴머니즘 및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과 차별성을 띤다. 이런 의미의 포스트휴머니즘은 주로 인문학, 문화학 진영에 터전을 두면서 휴머니즘(인본주의) 전통을 문제 삼고 비판함으로써 인본주의적 인간상을 극복하려고 한다. 이 진영의 대표 주자로는 캐서린 헤일스Katherine N. Hayles, 슈테판 헤어브레히터Stefan Herbrechter,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 캐런 바라드Karen Barad, 캐리 울프Cary Wolfe, 프라모드 나야르Pramod K. Nayar 등을 들 수 있다.<sup>6)</sup> 이들이 비판하는 전통적 휴머니즘은 인간중심주의로서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 두면서 다른 존재자들에 대한 처분권을 인간에게 부여하려는 사고이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 ‘만물의 영장’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인간중심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바로 포스트-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진영에서는 특히 1985년 도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sup>8)</sup> 이후로 인간, 동물, 기계 사이의 경계 허물기를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트랜스휴머니즘과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에서는 인간을 기계의 도움으로 ‘향상enhancement’시키거나 인간으로 하여금 동물의 몸을 극복하고 비물질, 관념, 초월의 차원으로

6) *Ibid.*, p.92(106쪽). 동물이면서 동물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의 포스트휴먼적 미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레이 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김명남·장시형 역, 김영사.

7) 관련 저술로는 예컨대: K. N. Hayles, *How We Became Posthuma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캐서린 헤일스,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사이버네틱스와 문학, 정보 과학의 신체들』, 허진 역, 열린책들, 2013); S. Herbrechter, *Posthumanism: A Critical Analysis*, Bloomsbury, 2013; R. Braidotti, *The Posthuman*, Polity, 2013(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역, 아카넷, 2015); R. Braidotti, *Posthuman Knowledge*, Polity, 2019; K. Barad,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ke University Press, 2007; C. Wolfe, *What Is Posthumanis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P. K. Nayar, *Posthumanism*, Polity, 2014.

8) D. J. Haraway, “A Cyborg Manifesto,” in D. J. Haraway, *Manifestly Harawa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6, pp.3~90(도나 해러웨이, “사이보그 선언,” 도나 해러웨이,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역, 책세상, 2019, 15~112쪽).

로 넘어가게 하려는 유토피아적 경향으로까지 흘러가고 있다. 반면에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에서는 인간의 물질성과 신체성을 억압하지 않으며, 인간-비인간 존재들 사이의 ‘얽힘entanglement’에 주목하며 자연-문화 연속의 새로운 생태계를 지향한다.

오늘날 포스트휴머니즘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은 주로 ‘포스트휴먼-이즘’, 즉 트랜스휴머니즘 또는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포스트휴먼’화, 즉 동물의 몸을 벗어나 인간을 초월하여 새로운 인간이 되는 탈인간화는 결국 유발 하라리가 언급하는 ‘호모 데우스homo deus’<sup>9)</sup>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간-기계-신’적 존재로 가는 길은 자본주의 경제 및 산업의 측면에서는 매력적일지 몰라도 이러한 환상에 우려와 저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포스트휴먼화는 인간성을 옹호하는 보수적 입장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위험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포스트휴먼 시대에 인문학은 무엇인가?

## 2. 포스트인문학의 대두와 지형

‘인문학humanities’이 ‘인간 조건human condition’을 탐구하는 것이라면, 오늘날 인간이 처한 조건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고 있고 여기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대 상황에 대한 인문학의 응답이 바로 ‘포스트인문학posthumanities’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인문학은 말하자면 ‘포스트인간 조건posthuman condition’에 대한 탐구이며, ‘인문학 이후의 인문학’이다. 여기서 접두어 ‘포스트-’는 단순히 뭔가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단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이 이어지지만 그것이 더 이상 예전의 안전지대에 머물지 못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요동, 변모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9) 유발 하라리, 『호모 데우스: 미래의 역사』, 김명주 역, 김영사, 2017.

포스트인간 조건은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문화, 몸과 기계, 타자와 자아 사이의 관계와 경계가 변동하고 있는 시대에 처한 인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이 새롭게 처하게 된 시대 상황과 인식 조건은 인문학에도 새로운 변신을 요청하게 된다. 포스트인간, 즉 포스트휴먼 시대는 ‘인간’이 누구/무엇인지가 불확실해진 시대이며, 내가 로봇이 아니고 인간임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이며, 지금까지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본 휴머니즘적 이상이 흔들리고, 인간이라는 생물종을 위계의 최상위에 두는 인간종 중심성/예외성이 도전받고 있는 시대이다. 즉, 이 시대의 인간들은 ‘포스트휴먼 곤경posthuman predicament’<sup>10)</sup>으로 일컬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 곤경은 서로 관련 있고 중첩되는 세 가지 위기로 표현될 수 있는데, 첫째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그 되갚음을 받고 있는 종으로서의 인간의 위기이며, 둘째는 윤리의 기준으로 작용해 왔던 유럽 휴머니즘의 위기이며, 셋째는 앞서 언급했던 전통 인문학, 즉 인간에 관한 고전적 지식의 위기이다. 포스트휴먼 곤경은 달리 말하자면 ‘우리’, 즉 지구 행성에 거주하고 있는 인간과 비인간이 ‘네 번째 산업혁명’<sup>11)</sup>과 ‘여섯 번째 대멸종’<sup>12)</sup> 사이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sup>13)</sup>

포스트인문학은 포스트인간 조건과 포스트휴먼 곤경에 대한 응답이다. 이 응답은 다양한 관점과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포스트휴먼-이즘의 ‘인간 이후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의 ‘탈중심화된 인간’에 대해 비판적으로 지식을 생산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포스트인문학’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명칭은 아직 제도적 틀에 수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포스트인문학에 관한 담론은 2000년대 무렵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

10) R. Braidotti, *The Posthuman*, Polity, 2013, p.1(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역, 아카넷, 2015, 8쪽).

11) K.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2016(클라우스 슈밥,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역, 메가스터디북스, 2016).

12) E. Kolbert, *The Sixth Extinction: An Unnatural History*. Henry Holt Company, 2014(엘리자베스 콜버트, 『여섯 번째 대멸종』, 이해리 역, 처음북스, 2014).

13) R. Braidotti, *Posthuman Knowledge*, Polity, 2019, p.2.

로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posthumanities’라는 명칭은 2006년 닐 배드밍턴<sup>14)</sup>의 제안에 이어, 캐리 울프,<sup>15)</sup> 슈테판 헤어브레히터<sup>16)</sup> 등의 저서를 필두로 해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2007년부터 미네소타 대학 출판사에서 캐리 울프가 편집자가 되어 발행하고 있는 총서의 제목이기도 하다.<sup>17)</sup> 또한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문학을 고민하는 대표적인 학자 중 하나인 로지 브라이도티의 저술에서도 그 명칭이 2014년 무렵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sup>18)</sup>

포스트인문학은 전통적 인문학 산하의 분과들이 단순히 새로운 주제 영역을 개척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인문학자들은 사회와 문화의 변동이 일으키는 도전에 직면하여 기존의 수립된 분과 고유의 지식을 되돌아보고 그 방법과 형식을 재고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인문학 분과는 다른 영역, 즉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 등과 학제적으로 교섭하고 분과 횡단적인 공통 관심사를 추구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포스트인문학은 융합·복합 학문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학문 간 교섭 및 융합의 장에서도 인문학 고유의 해석과 비판의 관점은 견지되어야 할 것

14) N. Badmington, “Cultural Studies and the Posthumanities,” in G. Hall & C. Birchall, eds, *New Cultural Studies: Adventures in Theory*,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6, pp.260~272.

15) Wolfe, *op.cit.*, ch. 4.

16) Herbrechter, *op.cit.*, ch. 5.

17) 2021년 기준으로 총 65권이 출간되었다(<<https://www.upress.umn.edu/book-division/series/posthumanities>>).

18) 예컨대 R. Braidotti, “Working towards the Posthumanities,” *Trans-Humanities* 7:1, 2014, pp.155-176. 그 이전에는 ‘posthuman humanities’(포스트휴먼 인문학)이라는 이름이 쓰였다(예컨대 R. Braidotti, *The Posthuman*, Polity, 2013, ch. 4). 그의 최근 저서(R. Braidotti, *Posthuman Knowledge*, Polity, 2019)에는 ‘posthumanities’, 정확하게는 ‘PostHumanities’이라는 명칭이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틀 안에서 포스트인문학을 다루는 최근의 논의로는 페란도(F. Ferrando, *Philosophical Posthumanism*, Bloomsbury, 2019; 프란체스카 페란도,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 포스트휴먼 시대를 이해하는 237개의 질문들』, 이지선 역, 아카넷, 2021)를 들 수 있다.

이다. 포스트휴먼 시대에도 난이도는 높아졌지만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데 여전히 인문학의 역할은 중요하다. ‘포스트인문학’이라는 지각 위에는 다양한 흐름들이 있으며, 이들은 또 서로 교차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류를 만들기도 한다. 여기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의 전모를 소상히 들여다볼 수는 없으므로 큰 흐름을 개괄적으로 조망해 보는 것으로 갈음한다.

포스트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문학, 즉 포스트인문학을 둘러싼 논의에서 자주 지목되어 온 두 가지 흐름이 있다면 ‘환경인문학 environmental humanities’과 ‘디지털인문학 digital humanities’일 것이다. 디지털인문학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문학의 대응이라면, 환경인문학은 ‘여섯 번째 대멸종’에 대한 인문학의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브라이도티<sup>19)</sup>가 포스트인문학의 예로 제일 먼저 꼽은 것은 사실 환경인문학이다. 분과간 제휴 학문인 환경인문학은 ‘인류세’라는 말이 대변해 주는 현상, 즉 인간 활동이 지질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지속가능성 인문학 sustainable humanities’, ‘인류세 인문학 Anthropocene humanities’로 불리기도 한다. 환경인문학이 이끄는 방법론적, 이론적 혁신은 자연-문화 대단절의 벽을 무너뜨리고 사회·문화적 질서가 탈자연화된 것이 아니라 환경 및 유기체적 기반과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음을 역설하며, 우리 모두의 삶 바탕에 있는 상호의존성의 다층적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sup>20)</sup>

디지털인문학은 21세기를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정보소통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가 가속화되었고 이로써

19) R. Braidotti, *The Posthuman*, Polity, 2013, p.159(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역, 아카넷, 2015, 206쪽).

20) 환경 인문학에 대한 개관은 예컨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S. Oppermann & S. Iovino, eds, *Environmental Humanities: Voices from the Anthropocene*, Rowman & Littlefield, 2016; R. S. Emmett & D. E. Eye,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A Critical Introduction*, MIT Press, 2017; U. K. Heise et al., 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Routledge, 2017.

전통적인 인문학의 대상과 방법에도 중대한 변화가 초래된 것이다. 컴퓨터로 인문학을 하는 이른바 ‘전산 인문학humanities computing’은 20세기 중반부터 있어 왔지만, 오늘날 ‘디지털인문학’은 문자언어 텍스트의 정보화를 넘어서 다매체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문학 기획이다. 디지털 인문학은 정보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전통 인문학의 텍스트와 내용을 정보소통 도구를 통해 디지털화, 검색, 이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디지털 인문학은 ‘순수’ 인문학을 옆에서 돕는 시녀 역할을 맡기 위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문학에 혁명을 일으켜 시대에 맞는 변신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 인문학도 포스트인문학의 중요한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sup>21)</sup>

그 밖에도 ‘...연구/학studies’ 또는 ‘...인문학’의 명칭으로 포스트휴먼 시대의 다양한 포스트인문학 형태들이 전통 인문학 분과의 외곽에서, 분과학문 간 경계를 넘어서 확산되고 있다.<sup>22)</sup> 인본주의적 보편 인간(‘Man’)과 최상위 생물 종으로서의 인류(‘Anthropos’)를 중심에 두어 왔던 전통 인문학은 생명 위기와 포스트휴먼 상황에서 새로운 사유 방식을 모색하고 변모하는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변혁은 다양한 영역에서 ‘비인간으로의 전환nonhuman turn’,<sup>23)</sup> ‘물질로의 전환material turn’,<sup>24)</sup>

21) Braidotti, *op.cit.*, p.162(209쪽); G. Hall, *Pirate Philosophy: For a Digital Posthumanities*, MIT Press, 2016; p.Mahon, *Posthumanism: A Guide for the Perplexed*, Bloomsbury, 2017, pp.251~269. 메이혼은 언급된 장소에서 특히 전통적인 문학·문화 연구에서 강조되어 온 ‘징후 읽기symptomatic reading’, ‘가까이서(자세히) 읽기 close reading’를 넘어서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 ‘디지털 읽기digital reading’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22) 예컨대 ‘의료medical 인문학’, ‘대중public 인문학’, ‘상호작용interactive 인문학’ 등(R. Braidotti, *Posthuman Knowledge*, Polity, 2019, ch. 4). 포스트인문학의 틀에서 최근 들어 부상하고 하고 ‘... studies’의 예로는: ‘장애학disability studies’, ‘음식학food studies’, ‘(인간-)동물학(human-)animal studies’,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등.

23) R. Grusin, ed., *The Nonhuman Tur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5.

24) 예컨대: 김환석, “사회과학의 ‘물질적 전환(material turn)’을 위하여,” 『경제와사회』 112, 비판사회학회, 2016, 208~231쪽.

‘존재로의 전환(ontological turn)’<sup>25)</sup> 등으로 성격 규정되고 있으며, 새로운 명명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론, 사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신유물론(new materialism), 사변적 실재론(speculative realism, 객체 지향 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 신실재론(new realism), 인류학의 존재론적 선회(ontological turn in anthropology) 등을 들 수 있다.<sup>26)</sup>

이처럼 21세기에 부상하는 포스트인문학 또는 ‘새로운 인문학’은 인간-비인간, 자연-문화 이분법에 대해, 그리고 삶, 앎, 합의 주체에 대해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 Ⅲ. 포스트인문학 관점에서 본 언어 세미오시스

포스트인문학은 전통 인문학의 인간중심주의와 인간예외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이 언어학이나 언어철학과 같은 언어연구 영역에도 작용한다면 전통적 언어관에는 어떤 변화가 초래될까? 전통적으로 서구에서는 인간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이성과 언어가 지목되어 왔는데, 포스트인간성 담론에서 언어의 위상은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맞물려 자리매김된다.

#### 1. 언어-비언어 연속성

우리는 흔히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해 주는 결정적인 특성으로 언어 능력을 든다. 일찍이 “인간은 언어가 있어야만 인간이다”,<sup>27)</sup> “언어는 생

25) M. Holbraad & M. A. Pedersen, eds., *The Ontological Turn: An Anthropological Expo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26)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망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Grusin, *op.cit.*; 김환석 외,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전 지구적 공존을 위한 사유의 대전환』, 이성과감성, 2020; 千葉雅也 et al., “現代思想の総展望2019: ポスト・ヒューマニティーズ.” 『現代思想』 2019年1月号 総特集..

각을 빛는 기관이다”<sup>28)</sup>라고 선언한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1767~1835)는 인간의 언어 능력을 점진적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진화 과정에서 갑자기 일어난 질적인 도약의 결과로 보았다.<sup>29)</sup> 이러한 사고는 20세기 후반 촘스키 언어학 등 인지과학의 지배적 견해로 자리 잡았다. “소리에 생각을 붙이기를 무한히 할 수 있는 능력”인 언어 능력이 호모 사피엔스의 진화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시기는 대략 5~10만 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다.<sup>30)</sup> 이 과정을 유발 하라리는 “지식의 나무 돌연변이Tree of Knowledge mutation”로 칭한 바 있는데, 언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고·소통 방식의 출현은 약 3~7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의 DNA에 우연히 발생한 이 생물학적 사건이며, 인간에게 허구를 지어낼 줄 아는 능력을 얻게 했고 이로써 “인지 혁명Cognitive Revolution”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다.<sup>31)</sup> 이렇게 해서 언어는 인간(호모 속 중에서도 호모 사피엔스 종)만이 갖는 종 특유의 ‘본능’이 되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적절한 조건 속에 있으면 비교적 빨리, 쉽게 언어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인간 동물에게 인간 언어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으며 인간의 언어는 비인간 동물의 소통체계와 어떤 관련성도 없다는 언어관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데, 이것은 인간 중심 및 인간 우위 사고의 기반이 되기 마련이다. 즉, 언어는 인간을 다른 종들에게서 떼어 놓는 경계선이 되는 것이다.

인간 언어에 종 특유의 특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 언어가 다른 동물의 소통방식과 무관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특이성을 지닌다는 주장은 오늘날 여러 증거로 인해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sup>32)</sup> 비인간 동물

27) “Der Mensch ist nur Mensch durch Sprache.”: W. von Humboldt, *Wilhelm von Humboldts gesammelte Schriften: Band IV*, De Gruyter, 1968, p.15.

28) “Die Sprache ist das bildende Organ des Gedanken.”: W. von Humboldt, *Wilhelm von Humboldts gesammelte Schriften: Band VII*, De Gruyter, 1968, p.53.

29) J. Trabant, “Der Mensch ist nur Mensch durch Sprache,” in D. Ganten et al., eds, *Was ist der Mensch?*, De Gruyter, 2008, p.241.

30) N. Chomsky, *What Kind of Creatures Are W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6, p.3.

31)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조현욱 역, 김영사, 2015, 44쪽.

32)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참조할 것은: V. Evans, *The Language Myth: Why Language*

의 소통체계 가운데는 인간 언어와 거의 맞먹는 복잡성, 유연성, 사회적-지역적 변이, 후천적 습득의 측면 등을 보이는 것들도 존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침팬지는 발성기관의 제약으로 인간의 음성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인간 언어의 한 양식인 수어를 습득하여 초보적인 수준에서 인간과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인간보다 단기기억 능력이 뒤떨어지지만, 언어를 대신하는 시각적 수단을 통해 보완하면 좀 더 복잡한 통사 능력을 보인다고도 한다.<sup>33)</sup> 또한 호모 사피엔스의 음성언어도 호모 에렉투스부터 시작해서 네안데르탈인을 거쳐 150만년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진화의 산물이라는 연구도 있다.<sup>34)</sup> 이를 포함한 다양한 증거들은 인간이라는 동물의 언어와 다른 동물들의 소통양식 사이에 ‘대단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음을 뜻한다. 인간 동물의 언어는 영장류 동물의 원시 소통양식에서 진화된 것이라는 것이다.

언어가 동물계에서 독보적인 소통 및 지식 수단으로서 다른 동물이 따를 수 없는 인간 특유의 문화적 성취를 끌어낸 원동력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도 전체 생물계의 다양한 소통체계의 맥락 속에서 상관적 자리매김이 이루어질 때 인간중심주의에서 포스트휴머니즘적 탈인간중심주의로 나아가는 통로가 열릴 것이다. 그 실마리는 ‘생명기호학biosemiotics’이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오늘날 퍼스<sup>35)</sup> 전통의 생명기호학에서는 ‘기호-대상-해석체’의 3자 관계로 파악되는 세미오시스semiosis(기호활동)를 인간의 전유물로만 간주하지 않고 다른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생명활동으로 보고 있다. 세미오시스는 생명을 규정하는 본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비인간

---

*is Not an Instin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33) *Ibid.*, pp.41~43.

34) D. Dediu & S. C. Levinson, “On the Antiquity of Language: The Reinterpretation of Neandertal Linguistic Capacities and Its Consequences,” *Frontiers in Psychology* 4:397, 2013.

35) C. S. Peirce, *Collected Papers*, 8 Vols. 1931-1958; *The Essential Peirce: Selected Philosophical Writings*, Vols. 1-2,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1998.

생명이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성, 신체성이 아니라 기호가 된다. 인간과 비인간이 이루는 온 생명은 기호활동을 하며 기호를 통해, 기호에 기대어 살아간다는 것이다.

세벽<sup>36)</sup>에 따르면, 세미오시스는 “**꼴form**을 생산하고 이해하는 생물학적 능력”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꼴을 만드는 활동을 일컬어 ‘**모델링modeling**’ (꼴짓기)이라고 하며, 다양한 양식으로 실현되는 꼴을 통해 세계를 나타내는 능력을 일컬어 ‘**재현representation**’(나타내기)이라고 한다. 모든 생명종은 자체를 둘러싼 우주에 대해 종특유의 주관적 세계를 구축하는데, 야콥 폰 위스퀼Jakob von Uexküll(1864~1944)은 이를 일컬어 ‘**둘레세계Umwelt**’라고 했다. 이러한 둘레세계를 구성하는 틀을 (생명)기호학에서는 ‘**모델링 체계modeling system**’로 부르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도 이러한 모델링 체계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모든 생명체는 우주에 대한 종고유의 모델(둘레세계)을 지니면서 의미를 구축하고, 비언어(화학, 동작, 시각, 청각 등) 기호를 통해 소통한다. 이러한 비언어적 기호활동 장치는 ‘1차 모델링 체계primary modeling system’가 되며, 언어는 바로 이 하부구조 위에서 구축되는 ‘2차secondary 모델링 체계’인 것이다. 2차 모델링 체계는 1차 모델링 체계에는 없는 구문 부문syntax이 있다는 차이를 보일 뿐이다. 1차 모델링 체계가 현존세계만을 모델링하는 것이라면, 2차 모델링 체계는 무수히 많은 가능세계도 모델링한다. 호모 사피엔스는 이러한 1차, 2차 모델링 체계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음성언어를 주요 소통수단으로 발전시키고 집단의 사회적 협력을 끌어냄으로써 문화라는 ‘3차tertiary 모델링 체계’를 갖게 되었다. 세벽의 이러한 견해는 언어를 1차 모델링 체계로 보고 문화 현상을 2차 모델링 체계로 본 유리 로트

---

36) T. A. Sebeok, “In What Sense Is Language a ‘Primary Modeling System’?” in M. Anderson & F. Merrell, eds, *On Semiotic Modeling*, De Gruyter, 1991; T. A. Sebeok, *Global Semiotic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1, pp.59~73; T. A. Sebeok & M. Danesi, *The Forms of Meaning: Modeling Systems Theory and Semiotic Analysis*, De Gruyter, 2000, p.5ff.

만<sup>37)</sup>의 언어중심주의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인간의 언어는 현실을 모델링하는 것을 넘어서 추상과 상징의 재현력을 발휘하여 자연을 넘어 문화로 이행하는 창의적 동력인 된 것이기는 하지만, 모델링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는 인간의 유일성/단절성/배타성보다는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 사이의 연속성과 자연-문화 연속성의 시각에서 그 자리매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퍼스 식으로 말하면, 언어라는 관습기호symbol를 독자적으로 사용하지만 도상기호icon와 지표기호index도 사용하는 점에서 비인간 생명체와 기호 양식(재현 양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서구의 주류 기호학이 인간중심적, 언어중심적이었던 데 반해, 이 새로운 관점의 기호학은 ‘인간/문화 세미오시스’를 넘어서 온 생명의 세미오시스에 주목한다. 이러한 생명기호학은 생명에 대한 기계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생명연구 자체에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자연-문화 연속성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준다. 이로써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학문횡단적transdisciplinary 연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제휴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2. 언어연구의 대상: 정제된 추상체에서 총체적 사실로

독립된 분과학문으로서 현대 언어학은 19세기 후반부터 문헌학의 하인 노릇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학문으로 성립하는 과정에서 연구대상과 방법론의 규정을 통해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해 왔다. 이 과정은 언어에 뒤섞인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 작업을 통해 연구대상을 규정하고 과학적 방법론을 수립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경험적 관찰 및 측정 가능성, 예측가능성, 타당성, 형식화 등이 중요한 지침이 되었지만, 언어에는 실증적인 방법으로 포착되지 않는 영역(예컨대 ‘의미’)이 있으며, 언어학이

---

37) J. M. Lotman, *Universe of the Mind: A Semiotic Theory of Culture*, I.B. Tauris, 1990.

아무리 과학성을 추구하더라도 이 영역을 외면할 수는 없다. 20세기 초 페르디낭 드 소쉬르는 바로 이 문제에 대응하여 언어를 형태-의미 양면의 기호체계로 재구성하려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소쉬르 이후의 구조주의 언어학, 촘스키 언어학, 화용 언어학 등도 패러다임 전환을 추동하기는 했지만, 과학주의와 환원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전통 언어학은 언어 및 의사소통의 연구에서 ‘규칙’(라그, 능력, 내재언어, 화용규칙 등)과 ‘적용’(빠를, 수행, 외재언어, 발화 등)을 방법론적으로 구분하면서 전자가 후자에 논리적, 발생적으로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를 재구성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이 과정에서 언어의 역사성, 사회성, 문화성 그리고 매체성 등의 문제는 자연히 언어이론과 관련 없는, 주변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따라서 규칙과 적용을 엄격히 구분하면서 이 양자에 대해 상이한 지위의 존재양식을 부여하는 언어관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언어현상 뒤에 숨어 있다는 ‘순수’ 언어 또는 ‘보편’ 문법을 찾기 위해 언어에서 깎아 내버린 부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어 성찰에서 이상화에 기초하여 ‘능력’(지식, 규칙체계)을 우위에 두게 되면 ‘수행’(실제 언어사용 행위)은 그 능력의 불완전한 실천이자 제약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능력-수행의 위계적 이분법이 갖는 문제를 자각하고, 언어 ‘존재론’을 수평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능력은 수행에 앞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좀 더 중립적인 용어로는 ‘활동’)이 바로 능력을 구성하고 변형하는 잠재적 창조력을 갖는다는 관점을 지향하는 것이다. 체계와 형식은 순수한, 이상화, 추상화된 단일의 “가상 언어virtuelle Sprache”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질적 언어활동들(“체화된 언어vekörperte Sprache”)에 호응하여 상이하게 구성되는 변이적인 것이다.<sup>38)</sup>

20세기 주류 언어학은 언어활동을 언어능력의 ‘수행’, 언어체계의 ‘사

38) 이 두 용어에 대해서는: S. Krämer, “Sprache - Stimme - Schrift: Sieben Gedanken über Performativität als Medialität.” In Uwe Werth, ed., *Performanz*, Suhrkamp, 2002, p.331.

용’으로만 봄으로써, 언어가 매개하는 ‘몸(생명) - 앎(인지) - 문화 - 소통(의미공유)’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경계를 긋고 관여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 종래의 언어학은 말하자면 ‘앎-함’ 이원모델에 기반을 둔 추상적 객관주의에 지배되어 왔다. 하지만 새 천년기 시작을 전후하여 언어관에도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일고 있다. 이 동향은 한 마디로 말해 형식적, 정적으로 실체화된 앎 체계인 ‘언어(language)’를 넘어서 역동적 과정, 삶이 되는 ‘언어활동(languaging)’으로 향하는 인식론적, 존재론적, 방법론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 언어학의 언어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에 대한 반성은 오늘날 다양한 방향에서 일고 있다.<sup>39)</sup> 크게 볼 때 언어학 내부의 움직임과 언어학 바깥의 동향으로 대별해 볼 수 있지만, 양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맞물려 상호 영향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언어학 내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체계언어학에 대립하여 화용언어학(화행론, 기능언어학, 텍스트언어학, 대화언어학, 담론언어학 등), 인지언어학, 사회언어학 등이 있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로서 최근 들어 언어학 외부의 다양한 움직임이 언어연구 패러다임에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언어철학, 문화·매체학, 제3세대 인지과학 및 생명기호학 등과 관련한 것들을 꼽을 수 있는데, 마지막 소절에서는 이 측면들을 개괄적으로 훑어보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한다.

### 3. 포스트인문학적 언어 세미오시스 연구의 방향

언어철학의 일각에서는 전통적인 ‘앎-함’ 이원 모델(소쉬르, 촘스키, 설, 하버마스 등)에 대립하여 ‘함’의 일원 모델(비트겐슈타인, 오스틴, 루

39) 이에 관해서는 다음도 참조: 김성도, 『언어인간학: 인류는 소통했기에 살아남았다』, 북이십일, 2017.

만, 데이빗슨 등)이 주창되어 왔는데,<sup>40)</sup> 최근 들어 새로운 흐름의 언어학은 후자의 모델에 주목하고 있다. 얇이 아닌 함으로서의 언어는 얇을 전제로 하는 ‘언어 사용’ 또는 ‘언어 수행’과 같은 용어를 낳은 관점을 통해서 사실에 적합하게 포착될 수 없다. 함으로서의 언어는 소쉬르의 랑그-파롤 구분 이전의 ‘랑가주le langage’에 상응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언어활동 languaging’<sup>41)</sup>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용어는 칠레의 인지생물학자 움베르토 마투라나와 프란시스코 바렐라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언어’ 관점<sup>42)</sup>에 힘입어 베커<sup>43)</sup>가 도입하여 최근 들어 언어 연구에서도 점차 널리 쓰이기 시작하고 있다.<sup>44)</sup> 티보<sup>45)</sup>에 따르면, 언어활동은 “몸-마음 이원론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온몸으로 하는 의미이해whole-body sense-making의 한 형태”가 된다.

또 다른 철학적 방향은 이른바 ‘언어로의 전환linguistic turn’으로 대변되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에 반하여 대두한 신실재론’<sup>46)</sup>이다. 이 철학이 언어학에 대해 갖는 의미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구성주의에 따른 언어상대주의, 현실의 언어적-사회적 구축, 언어-실재 관계 등의 문제에 대해

40) S. Krämer, *Sprache, Sprechakt, Kommunikation: Sprachtheoretische Positionen des 20. Jahrhunderts*, Suhrkamp, 2001.

41) 이 용어는 국내에서는 주로 언어교육과 관련한 소수의 연구에서 ‘언어하기’로 번역되고 있으나 ‘언어활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42) U. R. Maturana & F. J. Varela, *Autopoiesis and Cognition: The Realization of the Living*, Reidel, 1980, pp.30~35; 하지만 ‘languaging’이란 표현 자체는 그 이후에 발견된다(U. R. Maturana & F. J. Varela, *The Tree of Knowledge: The Biological Roots of Human Understanding*, Shambhala, 1987/1992, p.234).

43) A. L. Becker, “Language and Languaging,” *Language & Communication* 11(1/2), pp.33~35, 1991.

44) 최근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S. J. Cowley, ed, *Languaging: The Extended Ecology of Semiosis*, *Chinese Semiotic Studies* 15(4), 2019, Special Issue; V. Raimondi, “The Bio-Logic of Languaging and Its Epistemological Background” *Language Sciences* 71, 2019, pp.19~26.

45) p.J. Thibault, *Distributed Languaging, Affective Dynamics, and the Human Ecology. Volume I: The Sense-Making Body*, Routledge, 2021, p.68.

46) 이에 대한 개관은 예컨대 다음을 참조: A. Kanev, ed., *New Realism: Problems and Perspectives*, St. Kliment Ohridski University Press, 2019.

비판적 거리와 균형적 시각을 취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sup>47)</sup>

언어학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있는 또 다른 흐름은 문화학, 매체학, (사회)기호학 등이다. 최근 들어 언어학 내부에서도 늘고 있는 매체성mediality, 매체 상호성intermediality, 기호양식 다중성multimodality 연구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언어학에서는 인간의 언어적 소통 방식이 기술적 매체를 통해 확장되어 가는 양상을 다루고는 있으나, 언어 자체를 기호적 소통 매체로 보면서 다양한 소통 매체들과의 관련 속에서 언어의 매체성을 고찰하는 연구는 드문 편이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매체로서의 언어’에 주목하면서 언어 자체의 다양한 매체성, 물질성, 가시성, 수행성 등을 문화, 사회적 소통의 맥락에서 살펴보려는 “문화학으로서의 언어학”<sup>48)</sup>의 발전도 확인할 수 있다.

능력/규칙의 지배를 넘어 수행/활동을 복권시키는 언어관에서 언어활동을 규정하는 핵심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언어의 ‘매체성mediality’이다. 언어가 존재하는 곳은 시공간적 상황 속에서 매체(음성, 문자, 동작 및 기술적 전달매체)에 의한 분절이 수행되는 곳이다. 다시 말해, 언어는 매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매체-내-존재 언어Sprache-in-einem-Medium”<sup>49)</sup>인 것이다. 이러한 매체성은 단순히 언어사용(언어능력의 실현)에 부수되는 현상이 아니라, 언어에 필수적인 구성적 차원에 속한다. 따라서 매체의 차이(예컨대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는 단순히 가시적 현상의 차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어실행의 특성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제3세대 인지과학 및 생명기호학은 무엇보다 언어를 ‘언어 세미오시스linguistic semiosis’로서 연구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되어 준다. 20세기 중반부터 인간의 정신, 마음을 학제적으로 탐구해 오고 있는 인지과

47) E. Felder & A. Gardt, eds, *Wirklichkeit oder Konstruktion?* De Gruyter, 2018.

48) L. Jäger et al., eds., *Sprache - Kultur - Kommunikation: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zu Linguistik als Kulturwissenschaft*, De Gruyter, 2016.

49) S. Krämer, *op.cit.*, p.270.

학은 컴퓨터 은유에 의한 기호적 재현주의 기반의 초기 제1세대 인지과학과, 신경망을 모델로 한 연결주의 기반의 1980년대 제2세대 인지과학을 거쳐, 1990년대 이후 마음과 삶에서 몸이 하는 역할에 주목하는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중심의 제3세대 인지과학이 인간의 정신과 언어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체화된 인지뿐만 아니라 더욱 확장된 접근인 ‘4E Cognition’(즉, embodied, embedded, extended, enactive)이 화두가 되고 있다.<sup>50)</sup> 정신과 언어를 단순히 두뇌의 내적 상태로만 환원시켜 보지 않고 뇌-몸-환경 통합체의 역할에 주목하는 확장된 인지 접근은 생명현상 자체를 세미오시스(기호활동)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는 생명기호학의 기본 입장<sup>51)</sup>과도 맥을 같이 한다. 4E 인지과학을 비롯하여 인지기호학, 생명기호학 등 현대 기호학의 관점을 언어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최근 들어 점차 대두되고 있다.<sup>52)</sup>

#### IV. 나오는 말

세기 전환과 함께 시작된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새로운 비판적 사유 방식과 이에 근거한 ‘포스트인문학’은 이 세계를 혼돈 상태로 이끈 데 책임이 있는 수 세기 동안의 휴머니즘 사고를 바로잡으려는 지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 사고에 스며 있는 주도적인 휴머니즘 사상체계는 일방 우세의 이분법적 사고, 논리적 범주와 분류체계를 이용함으로써 지배와 착취의 논리를 제공해 왔다. 개체 및 집단 수준에서 상호 연결되어

50) A. Newen,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4E Cogn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51) 예컨대: J. Hoffmeyer, *Biosemiotics: An Examination into the Signs of Life and the Life of Signs*, University of Scranton Press, 2008; p.Cobley, *Cultural Implications of Biosemiotics*, Springer, 2016.

52) 예컨대: A. Kravchenko, *Biology of Cognition and Linguistic Analysis: From Non-Realist Linguistics to a Realistic Language Science*, Peter Lang, 2008; E. Velmezova et al., eds., *Biosemiotic Perspectives on Language and Linguistics*, Springer, 2015.

있어 선을 그어 구획할 수 없는, 영속적으로 변화하는 동적인 세계에 대한 지배와 통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과 포스트인문학은 인문학의 위기를 ‘인간성’(인간적인 것)만을 특별한 것, 예외적인 것으로 고립시켜 온 데서 찾는다. 이제 ‘인간적인 것’ 너머에 있는 ‘인간적이지 않은 것’으로 시야를 확대하고 이 둘이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인문학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분리해 온 인간 세계가 그보다 넓은 생명계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 맺는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오늘날 위기를 맞고 있는 인간성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논문의 본문에서 개관해 본 논의의 핵심은 이러한 새로운 인문학 변혁의 기류 속에서 언어연구의 방향도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현황과 앞으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성찰이다. 이 논문에서 강조한 것은 체계를 넘어서는 실행 중심의 언어관이며, 인간중심주의와 인간예외주의에서 파생되는 ‘언어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비인간 동물의 소통체계와 인간 언어 사이의 연속성에 주목하는 것이며, 언어를 ‘기호’, 좀 더 정확하게는 ‘세미오시스’ 관점에서 재성찰하는 것이다. 언어학을 기호학의 일부로 보는 입장은 일찍이 소쉬르에게서 비롯하지만, 이후의 흐름은 역설적이게도 언어기호가 기호 생태계의 중심과 본보기가 됨으로써 언어학이 기호학을 둘러싸는 형국이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반대로 일반 기호학에 에워싸는 언어학의 지형을 조망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이러한 언어연구는 기호들의 대륙 가운데서 언어기호의 영토에만 안주하지 않고, 기원과 바탕에서 서로 맞닿아 있고 쉽게 상호 교섭하는 다양한 기호들의 지도 위에서 언어가 어떤 위상을 갖는지를 재고찰하는 것이 된다.

언어 세미오시스, 즉 언어적 기호활동은 추상화와 형식화에 근거한 본질주의적, 환원주의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는 사실에 적합하게 포착될 수 없다. 언어적 기호활동에 내재하거나 결부되는 기호양식 다중성, 매체성,

물질성, 정표성expressivity, 정동성affectivity,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차원도 전통적인 부호화 사고를 통해서만 적절하게 파악할 수 없다. 언어 세미오시스 기호복합적으로 협응하는 관계적, 대화적 성격을 띠는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생명활동이자 ‘삶’ 그 자체가 된다. 이러한 언어적 기호활동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비인간과 인간 생명의 연속성, 자연-문화 연속성, 그리고 기호양식을 통한 다양한 재현 방식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도, 『언어인간학: 인류는 소통했기에 살아남았다』. 북이십일, 2017.
- 김환석, 「사회과학의 ‘물질적 전환(material turn)’을 위하여」, 『경제와 사회』 112, 비판사회학회, 2016, 208~231쪽.
- 김환석 외,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전 지구적 공존을 위한 사유의 대전환』, 이성과감성, 2020.
- 신상규 외, 『포스트휴먼이 몰려온다: AI 시대, 다시 인간의 길을 여는 키워드 8』, 아카넷, 2020.
- 이수진, 『사이언스픽션, 인간과 기술의 가능성』,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 도나 해러웨이, 「사이보그 선언」, 도나 해러웨이,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역, 책세상, 2019, 15~112쪽.
- 레이 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김명남, 장시형 역, 김영사, 2007.
-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역, 아카넷, 2015.
- 야이나 로,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조창오 역,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엘리자베스 콜버트, 『여섯 번째 대멸종』, 이해리 역, 처음북스, 2014.
-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조현욱 역, 김영사, 2015.
- \_\_\_\_\_, 『호모 데우스: 미래의 역사』, 김명주 역, 김영사, 2017.
- 클라우스 슈밥,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역, 메가스터디북스, 2016.
- 캐서린 헤일스,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사이버네틱스와 문학, 정보 과학의 신체들』, 허진 역, 열린책들, 2013.
- 프란체스카 페란도,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 포스트휴먼 시대를 이해하는 237개의 질문들』, 이지선 역, 아카넷, 2021.

- Badmington, N., “Cultural Studies and the Posthumanities,” in G. Hall & C. Birchall, eds, *New Cultural Studies: Adventures in Theory*,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6, pp.260~272.
- Barad, K.,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ke University Press, 2007.
- Becker, A. L., “Language and Linguaging,” *Language & Communication* 11(1/2), 1991, pp.33~35.
- Bod, R., *A New History of the Humanities: The Search for Principles and Patterns*

- from Antiquity to the Pres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Braidotti, R., *The Posthuman*, Polity, 2013.
- Braidotti, R., “Working towards the Posthumanities,” *Trans-Humanities* 7:1, 2014, pp.155~176.
- Braidotti, R., *Posthuman Knowledge*, Polity, 2019.
- Chomsky, N., *What Kind of Creatures Are W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6.
- Cobley, P., *Cultural Implications of Biosemiotics*, Springer, 2016.
- Cowley, S. J., ed, *Languaging: The Extended Ecology of Semiosis*, *Chinese Semiotic Studies* 15(4), 2019, Special Issue.
- Dediu, D., & S. C. Levinson, “On the Antiquity of Language: The Reinterpretation of Neandertal Linguistic Capacities and Its Consequences,” *Frontiers in Psychology* 4:397, 2013.
- Emmett, R. S., & D. E. Eye,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A Critical Introduction*, MIT Press, 2017.
- Evans, V., *The Language Myth: Why Language is Not an Instin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Felder, E. & A. Gardt, eds, *Wirklichkeit oder Konstruktion?* De Gruyter, 2018.
- Ferrando, F., *Philosophical Posthumanism*, Bloomsbury, 2019.
- Grusin, R., ed., *The Nonhuman Tur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5.
- Hall, G., *Pirate Philosophy: For a Digital Posthumanities*, MIT Press, 2016.
- Haraway, D. J., “A Cyborg Manifesto,” in D. J. Haraway, *Manifestly Harawa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6, pp.3~90.
- Hayles, K. N., *How We Became Posthuman: Virtual Bodies in Cybernetics, Literature, and Informat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 Heise, U. K., et al., 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Routledge, 2017.
- Herbrechter, S., *Posthumanism: A Critical Analysis*, Bloomsbury, 2013.
- Hoffmeyer, J., *Biosemiotics: An Examination into the Signs of Life and the Life of Signs*, University of Scranton Press, 2008.
- Holbraad, M., & M. A. Pedersen, eds., *The Ontological Turn: An Anthropological Expo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 Humboldt, W. von, *Wilhelm von Humboldts gesammelte Schriften: Band IV*, De Gruyter, 1968.
- Humboldt, W. von, *Wilhelm von Humboldts gesammelte Schriften: Band VII*, De Gruyter, 1968.

- Jäger, L., et al., eds., *Sprache - Kultur - Kommunikation: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zu Linguistik als Kulturwissenschaft*, De Gruyter, 2016.
- Kanev, A., ed., *New Realism: Problems and Perspectives*, St. Kliment Ohridski University Press, 2019.
- Kolbert, E., *The Sixth Extinction: An Unnatural History*, Henry Holt Company, 2014.
- Krämer, S., *Sprache, Sprechakt, Kommunikation: Sprachtheoretische Positionen des 20. Jahrhunderts*, Suhrkamp, 2001.
- Krämer, S., “Sprache - Stimme - Schrift: Sieben Gedanken über Performativität als Medialität.” In U. Wirth, ed., *Performanz*, Suhrkamp, 2002, pp.323~346.
- Kravchenko, A., *Biology of Cognition and Linguistic Analysis: From Non-Realist Linguistics to a Realistic Language Science*, Peter Lang, 2008.
- Loh, J., *Trans- und Posthumanismus zur Einführung*, Junius, 2018.
- Lotman, J. M., *Universe of the Mind: A Semiotic Theory of Culture*, I.B. Tauris, 1990.
- Mahon, P., *Posthumanism: A Guide for the Perplexed*, Bloomsbury, 2017.
- Maturana, U. R., & F. J. Varela, *Autopoiesis and Cognition: The Realization of the Living*, Reidel, 1980.
- Maturana, U. R., & F. J. Varela, *The Tree of Knowledge: The Biological Roots of Human Understanding*, Shambhala, 1987/1992.
- Nayar, p.K., *Posthumanism*, Polity, 2014.
- Newen, A.,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4E Cogn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Oppermann, S., & S. Iovino, eds., *Environmental Humanities: Voices from the Anthropocene*, Rowman & Littlefield, 2016.
- Peirce, C. S., *Collected Papers*, 8 Vols, Harvard Univ. Press, 1931-1958.
- Peirce, C. S., 1992. *The Essential Peirce: Selected Philosophical Writings*, Vols. 2,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1998.
- Raimondi, V., “The Bio-Logic of Linguaging and Its Epistemological Background,” *Language Sciences* 71, 2019, pp.19~26.
- Schwab, K.,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2016.
- Sebeok, T. A., “In What Sense Is Language a ‘Primary Modeling System’?” In M. Anderson & F. Merrell, eds., *On Semiotic Modeling*, De Gruyter, 1991, pp.327~340.
- Sebeok, T. A., *Global Semiotic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1.

- Sebeok, T. A., & M. Danesi, *The Forms of Meaning: Modeling Systems Theory and Semiotic Analysis*, De Gruyter, 2000.
- Thibault, p.J., *Distributed Languageing, Affective Dynamics, and the Human Ecology. Volume I: The Sense-Making Body*, Routledge, 2021.
- Trabant, J., “Der Mensch ist nur Mensch durch Sprache,” in D. Ganten, V. Gerhardt, J. Heilinger, & J.Nida-Rümelin, eds, *Was ist der Mensch?*, De Gruyter, 2008, pp.240~243.
- Velmezova, E., et al., eds., *Biosemiotic Perspectives on Language and Linguistics*, Springer, 2015.
- Wolfe, C., *What Is Posthumanis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 千葉雅也 et al., “現代思想の総展望2019: ポスト・ヒューマニティーズ.”『現代思想』2019年1月号 総特集.

Posthumanities and Linguistic Semiosis:  
A Review on the Directions of Language Studies in the  
Posthuman Era

Kang, Byong-Chang

In the context of the crisis of the 21st century and in the context of the new convergence of the topographical changes of the traditional humanities to the posthumanitie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reflection on language, which has been positioned as the center of signs, takes its place in the thought space of critical posthumanism and posthumanities. Critical posthumanism is a critical reflection on anthropocentrism and human exceptionalism, both of which are pointed out as drivers of today's Anthropocene crisis, and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a decentralized human being. This is being embodied as a posthumanities movement academically, and requires a new reflection on the human vs. non-human, nature vs. culture dichotomies, and on the subject of life, knowledge, and action. Currently, the posthumanities discourse is unfolding in all areas of the humanities, but the reflection on logocentrism, which is the basis of anthropocentrism, seems to be somewhat insufficient. This paper is an overview to help fill this gap, and an attempt to explore the directions of linguistic semiosis research from a posthumanities perspective. This review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verbal-nonverbal continuity and total linguistic facts as the subjects of linguistic research, and seeks the way forward for posthumanistic linguistic semiosis research. Even if the uniqueness of language is acknowledged, it is emphasized that language must also be placed in a relational position in the context of the various communication systems of the entire biological world, and this will give a glimpse into the path from anthropocentrism to posthumanistic post-anthropocentrism. It is also pointed out that mainstream linguistics in the 20th century has shown an attitude of not engaging in the connection of 'body - knowledge - culture - communication'

mediated by language. And a new paradigm shift that overcomes the competence-performance dualistic model is outlined.

Keywords : Posthumanities, Critical Posthumanism, Linguistic Semiosis, Verbal-Nonverbal Continuity, Total Linguistic Facts

투고일: 2022. 03. 24./ 심사일: 2022. 04. 13./ 심사완료일: 2022. 04. 14.